

여성지체장애인 가정의 주택 개조 실태 및 거주자의 물리적 주거환경 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valuation of Residential Environments and
Residential Alterations for Physically Disabled Women*

인천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최재순
건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부교수 권오정
인천대학교 생활과학부
강사 이의정

Division of Human Resources, University of Incheon
Professor : Choi, Jae-Soon
Dept. of Consumer Science & Housing, Kon-kuk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Kwon, Oh-Jung
Division of Human Resources, University of Incheon
Lecturer : Lee, Euiju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문헌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In order to develop a manual of residential alterations for the physically disabled, this case study was accomplished to analyze and evaluate residential environments and residential alterations for physically disabled women. Twenty-nine physically disabled women in Seoul and Kyunggi areas wer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ith the evaluation checklist on physical environments of their housing, data on general

* 본 연구는 2000년 행정자치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

characteristics of wall, floor, and all features and equipments and spaces of bedroom, kitchen, bathroom, living room, entrance and balcony were gathered. Also, data on residential alterations were gathered through personal interview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July 18th to July 25th in 2000. Frequency, percentage, and mean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In kitchen, small space, knee space under the sink and heights of the lower cabinets were not properly provided. In bathroom, door width, direction of opening door, adjustable height of shower, level difference, clear space for wheelchair user, and storage place were not appropriate to the disabled. Kitchen and bathroom showed high frequencies of alteration. But most of the subjects were not satisfied with the alterations of their housing. They also wanted to alter these two spaces in the future. In order to alter their housing effectively, appropriate information of the residential alterations was needed. If a guide or manual book for residential alterations was provided, the physically disabled people will more easily alter their housing for safe and independent life.

주제어(Key Words): 여성지체 장애인(physically disabled women), 주택개조(residential alterations), 주거 환경(residential environments), 안전(safety), 독립적인 생활(independent life)

I. 서론

주거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주거 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급되어 온 주거는 건강한 성인을 위한 환경 제공을 당연시하여 어린이,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이러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데 많은 위험 요소를 감수해야만 한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장애인의 수는 선천적 장애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등의 증가로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 후천적 장애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의 수는 총 1,053,468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가장 많은 비율인 66.8%를 차지하고 있다(장윤정, 2000). 이처럼 증가하는 지체장애인들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그 역량과 자질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주거환경이 이들에게 안전하게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즉 지체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 생활을 독립적으로 하는 것은 자립심뿐만 아니라 자긍심과 사회의 구성원으로 그 역할을 발휘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 이처럼 주거환경의 안전과 자립은 올바른 주택 개조를 통해서 확립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장애인이 되었을 때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의 이동보다는 자신의 주택에서 독립적인 생

활이 가능하도록 주택 내부의 개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장애인 주택 개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직업이 개발되어 장애인의 장애 상태에 따라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택 개조 사업을 실시하여 안심하고 개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등 서구의 여러 나라들도 주택 개조에 관련된 많은 아이디어를 연구, 수집하고 이 정보를 실수요자인 지체장애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안전하고 자립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확보되어 있지 않을 경우, 올바른 주택 개조를 통해 생활 기반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규 주택 공급시 장애인들을 위한 안전성, 접근성, 편리성 등에 대한 배려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주택 개조사업도 장애인의 불편한 점에만 초점을 맞추어 부분적으로 개조가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비용으로도 더 효율적인 개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개조를 계획하는 장애인과 시행하는 시공업자 모두에게 체계적인 지식과 정보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같은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투자비용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되어야 하며 부분적 개조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주거 공간 전반에 걸쳐 가구, 생활용품, 생활기기, 또는 설비의 재배치나 보완을 통해 주생활에서의 안전과 자립을 증가시켜야 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장애인에게 주거환경에 대

해 통제력을 갖게 하여 현 주거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게 하고, 또한 자아감과 자긍심을 증대시켜 보다 질적인 삶(quality of life)과 안녕감(well-being)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 유형으로 자리잡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지체장애인을 위한 주택 개조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체 장애인 가정의 주택내 생활공간에 대한 개조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주택내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가사일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은 여성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현 주거환경을 분석하고 개조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II. 문헌고찰

장애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물리적 생활환경으로 나타났으며, 그들은 물리적 생활환경의 역할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장윤정, 2000). 그러므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은 장애인이 사는 주택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정성진, 1998). 우리나라는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계획에서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비용의 일부 보조를 2000년부터 시작한다고 하였으나 실질적인 주거생활의 질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저소득계층의 임대공동주택에 사는 장애인들은 자력으로 주택개조를 하려고 해도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주의 허락과 임대주택의 특성상 이사시 원상 복구를 해야 하는 문제점 등이 개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장윤정(2000)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거내 환경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더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데 관련된 행위들을 혼자서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주거내 환경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또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하나는 주거내 환경의 편리성으로, 편리성의 의

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주거환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규모 아파트 공간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의 주거환경을 연구한 오찬욱(2000, 2001)에 따르면, 지체장애인은 욕실 사용에 대한 불편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부엌에 대한 불편함, 경사로와 침실에 대한 불편함 등이었다. 욕실의 세부적 불편 내용으로는 공간 협소로 인한 불편, 바닥의 미끄러짐과 실내와의 단차로 인한 사용불편이었다. 부엌에 대해서도 역시 공간 협소, 작업대 높이, 상부수납공간 사용 불편 등을 지적하였다. 성별에 따른 공간별 불편정도에서는 여성이 베란다 공간 사용에 더 불편을 느꼈는데 이는 세탁 등 가사작업공간으로 베란다 등이 사용되며 주로 여성이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조여부에 따라서는 개조를 한 경우, 욕실, 부엌, 경사로, 침실, 베란다, 현관, 복도공간에서 불편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진(1998)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부엌 작업대와 수납장 높이를 개조하여 설치저하기가 편리하고 가스레인지대도 낮게 개조하여 위험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경사로를 설치하여 휠체어를 타고 스스로 외출할 수 있으며,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자유롭게 찾아 올 수 있어 개조후 장애인의 주거환경 만족이 높았다고 하였다.

장애인주택개조 사업 지원을 받은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조실태를 조사한 최재순 외(2000)의 연구에서는 한정된 개조금액으로 인하여, 안전하게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엌과 욕실에 대한 개조가 가장 많았으며, 레버식 수도꼭지,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매트, 부엌 작업대 높이 낮춤 등의 개조를 행하였다. 개조 후 만족정도에 대해서는 현관의 단차 제거에는 만족하였으나, 욕실의 미끄럼방지매트에 대해서는 불만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미끄럼방지매트가 청소하기 용이하지 않고 욕실의 습기로 인하여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이었다. 부엌에서는 작업대의 높이를 낮추었으나 수전의 높이를 낮추지 않아 물이 튀는 현상으로 인해 불만족

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을 제외하고 지체장애인과 그들의 가족들은 개조에 만족을 나타내었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29명의 여성지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물리적인 주거환경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문항과 면접조사 내용이 연구자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타당성 검토를 위해 2000년 7월 14일 예비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수정, 보완하였다. 본조사는 2000년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조사원 8명에 의해 설문면접, 현장관찰 및 측정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도구는 크게 2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첫째는 면접조사를 위한 설문지로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7문항), 장애관련 특성(6문항), 주거관련 특성(9문항), 일반적 개조관련 특성(7문항), 개조경험이 있는 경우의 개조관련 특성(14문항), 개조한 경험이 없는 경우의 개조관련 특성(12문항) 등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는 물리적 주거환경분석을 위한 체크리스트로써 벽, 바닥, 설비 및 조작기등 일반적 사항과 각 세부 공간에 대한 사항 등 총 165문항(정성평가 문항 19개, 정량평가문항 146개)으로 구성되었다.

물리적 주거환경 분석은 각 문항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위해 3단계척도를 이용하여 평가점수(1점: "안되어 있음, 2점: "보통", 3점: "잘되어 있음")를 부여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하였고, 면접설문조사의 결과는 SAS 윈도우버전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등을 산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 여성지체장애인의 개인적 특성 및 장애관련 특성

조사 대상자의 연령은 30대(31%)와 40대(42%)가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약 41세이었다. 학력은 56%가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었으며 28%가 정식교육을 받지 못하여 일반적인 장애인에 비해 교육수준은 낮았다. 월평균 가족수입에서는 특별한 장애가 없는 다른 가족원들의 직업활동으로 인해 1,142,727원으로 나타났으나, 100만원 미만의 수입이 전체 조사대상 가정의 67%를 차지하였다. 월 평균 생활비도 90만원 이상을 소비하는 경우가 21%로 나타났고 현 소득으로 생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가정도 61%를 차지하였다.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89%)은 직업이 없었고, 평균 가족수는 2.75명으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장애인가구의 평균가족수 3.45명(정기원외, 1995)에 비해 가족수가 적게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들은 모두 1등급(79%)과 2등급(21%)에 속하는 중증장애인들로서 소아마비, 뇌성마비장애가 많았으며 대부분(91%)이 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않았다. 실내에서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경우는 39.3%에 그쳤고, 보조기구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휠체어(29%)의 사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조사대상 가정의 주거관련 특성

조사대상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평균 규모는 19.1평으로 협소한 편이었고 거주기간은 평균 7년 정도로 긴 편이었다. 소유형태는 자가(52%)와 타가(48%)가 거의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주택내방의 수는 평균 2.4개였고 주거 만족도에서는 현 주택에 만족하는 경우가 48%에 그쳐 만족의 수준은 높지 않았다. 욕실의 위치/거리가 크게 불편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7%에 그쳤고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가 43%이었는데 이는 협소한 주택규모로 인해 실내에서 욕실로의 이동거리가 짧기 때문에 불편정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부엌에서 보내는 시간도 일일 1시간과 1시간 30분-2시간 정도가 각각 23%, 3시간 정도가 14%로 부엌에서 머무는 시간이 꽤 긴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가사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2%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모두 장애등급 1, 2등급의 중

중 장애인임을 감안한다면 부업에서의 가사노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 여성지체장애인들은 일일 평균 23시간 정도를 집에서 보내고 있어 거의 하루종일 집안에서 생활하는 실정이었다.

3. 조사대상 여성지체장애인의 가정의 개조관련 특성

조사 대상 29가정 중에서 개조를 한 경험이 있는 가정이 18가정, 개조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11가정

으로, 개조경험 유무를 나누어 결과를 분석하였다.

1) 개조한 경험이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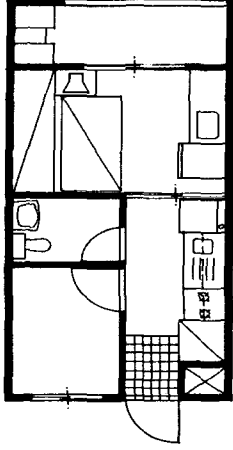
(1) 개조관련 특성

〈표 1〉과 같이, 전체 18가정 중 15가정(75%)이 90년대에 개조를 하였고, 개조 이유로는 전반적으로 현 주거공간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여 개조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특히 휠체어의 사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개조한 경우가 17%로 나타났다. 개조에 관련된 정보획득 방법으로는 조사대상자 자신의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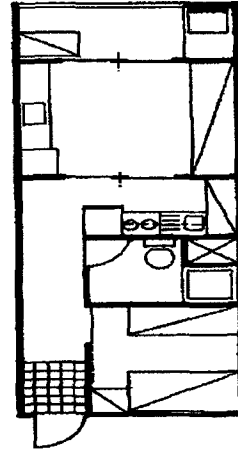
〈표 1〉 개조경험이 있는 조사대상 가정의 주택개조 관련 사항

변 인		빈도(백분율)	변 인		빈도(백분율)		
개조시기	1980년대	1 (5.00)	개조비용	100만원 이하	10 (55.56)		
	1990년대	15 (75.00)		200만원 이하	2 (11.11)		
	2000년 7월 현재까지	4 (20.00)		기타(2,000만원)	1 (5.56)		
개조이유	불편해서	12 (66.67)	개조 시 비용 부담	본인 부담	9 (56.25)		
	휠체어 사용을 편리하게	3 (16.67)		가족 부담	3 (18.75)		
	부업 작업시 편리하게	1 (5.56)		단체 부담	4 (27.00)		
	공간 협소로	1 (5.56)	앞으로	정부	11 (55.00)		
	세탁 및 건조 문제로	1 (5.56)	개조 시	본인 이외	4 (20.00)		
개조관련 정보획득 방법	본인의 생각이나 아이디어	14 (77.78)	개조비용	단체	4 (20.00)		
	신문이나 TV등의 매체	1 (5.56)	부담희망	본인	1 (5.00)		
	주위 사람들로 부터	3 (16.68)	개조이외 받고 싶은 프로그램	청소 도우미	11 (42.31)		
개조 시 문제점	개조 비용	9 (39.13)		요리 혹은 식사 도우미	6 (23.08)		
	임대로 인한 어려움	5 (21.74)		외출 도우미	6 (23.08)		
	개조전문시공업자 부족	2 (8.70)		목욕 도우미	1 (3.85)		
	개조관련 정보 및 지식 부족	1 (4.35)		운동 도우미	1 (3.85)		
기타	6 (26.09)	육아 도우미	1 (3.85)				
개조 후 불편 유무	불편하지 않다	11 (68.75)	개조를 더 원하는 공간 및 내용	부 역	상하부 수납장 높이	10 (21.28)	
	불편하다	5 (31.25)			손닿는 높이의 수납선반		
	베란다를 통한 겨울철 추위	1 (20.22)			수납공간 확대		
	욕조를 없앤 후 불편	1 (20.00)			가스안전밸브 높이		
	부업 작업대 무릎공간 미확보	2 (40.00)			배기후드 높이		
하부 수납장 부족	1 (20.00)	욕 실	사용가능한 수도꼭지 높이	10 (21.28)			
공간별 개조빈도	욕실		22 (41.51)		레버식 수도꼭지		
	부엌		13 (24.53)		베란다	단차없애기	3 (6.38)
	현관		7 (13.21)		현관	경사로 설치	1 (2.13)
	베란다		7 (13.21)		기 타	스위치 높이	21 (44.68)
	조작기기	3 (5.66)	접이문				
거실	1 (1.89)		미끄럼방지 바닥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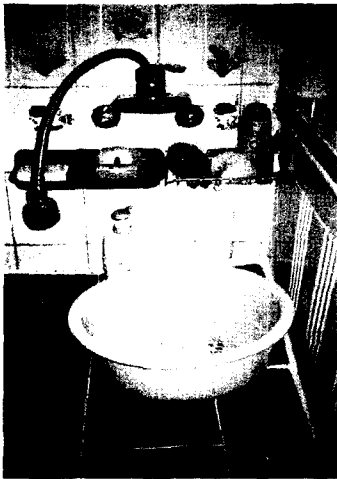
1) 무응답이나 복수응답으로 항목에 따라 응답자 수가 전체 사례수(N=18)와 동일하지 않음.



〈그림 1〉 조사 가정의 대표적인 평면 A



〈그림 2〉 조사 가정의 대표적인 평면 B



〈그림 3〉 낮추어진 세면대 수전



〈그림 4〉 월체어 무릎공간 및 코브라 수전

이나 아이디어라고 응답한 경우가 14가정(78%)으로 대부분 생활하면서 나타나는 불편함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였다. 개조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9가정(39%)이 개조비용을 지적하였다. 이는 앞서 설명했던 현 소득으로 생활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내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5가정(22%)은 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므로 개조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는 개조를 한 후 이사 등의 이

유로 현 임대주택을 떠나게 되면 개조 전의 원상태로 복구해야 함으로 개조비용과 복구비용 등 이중의 경제적인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개조 후의 불편함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가정의 31%가 불편함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조사대상 장애인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기준으로 개조를 하므로 정확하고 올바른 개조가 행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개조를 한 공간에 대해서는 욕실(42%)과 부엌



〈그림 5〉 하부수납장 문의 개조 및 휠체어 무릎공간 확보

(24%)이 가장 많았다. 이는 욕실과 부엌공간이 조사대상 여성지체장애인들에게는 가장 불편한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하며,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생리위생공간을 가장 많이 개조한 것으로 보인다. 개조에 대한 비용부담은 지체장애인 본인과 가족이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75%)이었다. 앞으로의 개조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하길 원하는 조사대상자들이 가장 많았다. 개조 이외의 받고 싶은 서비스 프로그램으로는 '청소 도우미'(42%)가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다음으로는 '요리 혹은 식사 도우미'(23%)와 '외출 도우미'(23%) 등 이었다. 이는 조사대상 여성지체장애인들이 청소, 식사준비나 외출 등에 어려움과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개조된 곳 이외에 개조를 더 원하는 공간도 역시 부엌과 욕실이 각각 21%로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미 이루어진 개조로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욕실과 부엌을 사용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판단된다. 부엌의 구체적인 개조 희망사항으로는 상부 수납장이나 가스레인지 후드의 높이 낮추기와 가스 안전밸브 높이 낮추기 등이었다. 특히 조사대상자들은 가스안전밸브의 높이가 높아 항상 밸브를 열어 놓고 생활해야 하는 불안감을 갖고



〈그림 6〉 낮추어진 하부작업대 높이

있었다. 욕실공간에서는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길 원하였으며, 휠체어로 욕실 진입이 가능하도록 욕실 문 폭을 넓히거나 문턱을 낮추고, 수도꼭지 역시 사용이 가능한 높이로 낮추길 원하였다.

(2) 각 공간별 개조 내용 및 개조후 만족도

개조한 경험이 있는 18가정의 개조 내용 및 개조 후 만족도는 〈표 2〉와 같다. 욕실의 구체적인 개조 사항 중에서는 경사로를 설치한 경우와 문 폭을 넓힌 경우, 단차를 없앤 경우에는 개조 후 만족도가 높았으나, 욕조 제거와 세면대의 높이를 낮춘 경우에는 개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족의 정도가 높았다. 이는 사전 개조 정보의 미비 혹은 개조를 도울만한 지침서 등의 부재, 전문적인 개조 시공업자의 부족 등의 이유로, 조사대상 장애인에게 적합한 높이로 낮추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부엌에서 주로 이루어진 개조는 작업대나 상부 수납장의 높이를 낮추는 것이었는데 개조후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작업대 높이에 대한 불만족의 이유는 높이를 낮추었으나 무릎공간의 미확보로 전면 접근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측면 접근으로 가사작업을 하기 때문에 허리에 많은 부담을 주며 오랜 시간 작업을 하면 척추가 휘는 등의 질병을 유발하고 있었다. 또한 높이가 낮아진 작업대는 다른 가족들에게는 너무 낮아 결국 모두에게 불편한 개조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역시 개조에 관한 올바른 정

〈표 2〉 욕실 및 부엌 공간의 개조 내용 및 만족정도

공간	개조 내용 (개조빈도)	만족 정도	25%	50	75	100
욕실	문폭 넓힘(4)	만족 그저 그렇다 불만족	██████████	██████████	██████████	██████████
	경사로 설치(3)	만족 그저 그렇다	██████████	██████████	██████████	██████████
	단차 없앴(2)	만족	██████████	██████████	██████████	██████████
	안전손잡이 설치(3)	만족 그저 그렇다 불만족	██████████	██████████	██████████	██████████
	세면대 낮춤(2)	불만족	██████████	██████████	██████████	██████████
	욕조 제거(2)	불만족	██████████	██████████	██████████	██████████
부엌	작업대 높이 낮춤(11)	만족 그저 그렇다 불만족	██████████	██████████	██████████	██████████
	상부 수납장 높이 낮춤(2)	만족 그저 그렇다	██████████	██████████	██████████	██████████

보 없이 단순히 높이만을 낮추었기 때문이었다.

거실겸 침실에서는 베란다로 나가는 문의 문턱을 없애 통행하기 편리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조후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터폰의 높이를 낮춘 개조후 만족도 역시 높았다.

베란다의 경우, 단차를 없애 실내와 동일한 높이로 개조한 경우가 많았으나, 시공 후 사용하면서 바닥이 내려앉거나 습기로 인한 문제점들이 나타나 불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현관 개조에서는 경사로를 설치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개조후 만족도도 높았다. 그러나 한 가정의 경우에는 불만족을 나타내었는데, 그 이유로는 경사로 설치로 인한 미끄러짐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앞서 언급한 공간이외의 가정 기기에서 보이는 만족도는 세탁물을 앞으로 넣고 꺼내는 드럼형 세탁기의 사용에서 만족을 나타내었다. 이는 일반 세탁기의 높이가 여성지체장애인들에게는 너무 높으며 투입구와 조작 기기들이 상부에 설치되어 있어 세탁시 많은 불편을 느끼거나 짐계 등을 이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드럼형 세탁기에 대한 정

보는 빈약하였다.

2) 개조한 경험이 없는 경우

(1) 개조관련 특성

개조한 경험이 없는 11가정에 대한 개조관련 특성을 살펴 보면(표 3참조), 대부분(82%)이 개조를 희망하였고, 개조와 관련된 정보유무에서는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55%)와 그렇지 않은 경우(46%)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앞으로의 개조와 관련된 정보는 '본인의 아이디어나 생각' 혹은 '주변의 장애인 친구나 사람들을 통하여 얻는다'는 결과가 각각 동일한 비율(50%)로 나타났다. 개조시 공사를 의뢰할 곳은 아직 선정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67%).

개조를 원하는 공간으로는 부엌과 욕실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구체적인 개조희망내용은 욕실의 경우, 문폭 확장, 휠체어사용이 가능하도록 욕실 내부공간 확장, 변기·세면대·욕조 주변에 안전손잡이 설치, 세면대 높이 낮추기 등이었고 부엌에서는 상하부 수납장 높이 조절, 가스안전밸브의 높이 및 위치 조정 등이었다. 현관에서는 문폭 확장,

<표 3> 개조한 경험이 없는 조사대상 가정의 주택개조 관련 희망 사항

변 인		빈도(백분율)	변 인		빈도(백분율)	
개조희망 정도	개조를 희망함	8 (81.82)	개조시 예상되는 문제점	개조 비용	5 (45.45)	
	개조를 희망하지 않음	2 (18.18)		임차이므로 개조시 어려움	3 (27.27)	
개조 희망공간	부엌	8 (36.36)	개조비용	개조전문시공업자 부족	1 (9.09)	
	욕실	7 (31.82)		개조관련 정보 얻기 어려움 혹은 지식 부족	2 (18.18)	
	현관	3 (13.64)		예상되는 개조비용	60 - 70 만원 정도	8 (72.73)
	베란다	2 (9.09)			400만원 정도	1 (9.09)
기타	2 (9.09)		1,000만원 이하	1 (9.09)		
개조 희망이유	생활하기 불편하여	3 (37.50)	개조비용 부담자	모르겠음	1 (9.09)	
	휠체어의 실내 사용을 위해	2 (25.00)		정부	4 (44.44)	
	주변환경이 좋아 계속거주	1 (12.50)		복지관	2 (22.22)	
	가구등의 높이가 높아서	2 (25.00)		본인	2 (22.22)	
개조 희망시기	가능한 빨리	3 (27.27)	개조이외 받고싶은 서비스 프로그램	본인 + 정부	1 (11.11)	
	상황이 적절할 때에	1 (9.09)		음식 도우미	4 (26.67)	
	구체적 계획 없음	6 (54.55)		외출 도우미	3 (20.00)	
	임대라 개조 불가능	1 (9.09)		청소 도우미	3 (20.00)	
개조관련 정보유무	개조 관련 정보 있음	6 (54.55)		설거지 도우미	1 (6.67)	
	개조 관련 정보 없음	5 (45.45)		빨래 도우미	1 (6.67)	
개조정보 획득방법	본인의 아이디어나 생각	4 (50.00)		목욕 도우미	1 (6.67)	
	주위 사람들로부터	4 (50.00)		기타	2 (13.34)	

1) 무응답이나 복수응답으로 응답자 수가 전체 사례수(N=11)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함.

문턱 및 실내공간과의 단차 제거, 현관문을 여닫기 쉽도록 개조하는 것 등이 가장 많았다. 베란다에서는 단차제거와 실내공간으로 사용하도록 거실과 연결하여 확장하는 것 등이 개조희망사항이었다. 개조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개조비용(46%), 임차로 인한 개조의 어려움(27%) 등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예상되는 개조비용에 대해서는 60-70만원에서부터 1,000만원까지 범위폭이 넓었다. 이는 각 가정마다 개조해야할 구체적인 사항이나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시장조사의 미흡으로 인하여 정확한 예산책정이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또한 구체적으로 개조를 계획하고 있지 않아서 혹은 개조 관련 정보 부족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개조 이외의 주택내에서 받고 싶은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요리 혹은 식사 도우미'를 요청한 경우(26.67%)가 가장 많았다. 이는 이미 개조를 한 조사대상 지체장애인이 청소도우미를 선정한 경

우와는 다르게 부엌공간에 대한 개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사작업시 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감수하며 가사일을 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개조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복지관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경우(22%)도 있었다.

4. 조사대상 가정의 주거환경 평가 및 분석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29가정에 대해 물리적인 주거환경을 일반적인 사항(벽, 바닥, 설비 및 조작기기)과 각 실(현관, 거실, 침실, 부엌, 욕실, 베란다)로 분류하여 조사도구인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평가, 분석하였다(표 4).

물리적인 주거환경의 정량적 분석을 위해, 3단계 척도를 이용하여 점수화하였으며, 1점 "안되어 있음", 2점 "보통", 3점 "잘되어 있음"으로 분류하여

<표 4> 조사대상 가정의 물리적 주거 환경

		평가항목	평균점수	평가항목	평균점수	
일반적 사항	벽	벽면의 돌출물	2.14	부엌	내열성의 작업대 표면	2.67
		거칠지 않은 마감재	2.50		싱크주위 여유 공간	2.42
		평균	2.32		레버식 수도꼭지	2.89
	바닥	관리가 용이한 마감재	2.28		수도꼭지 높이	1.76
		수평바닥 및 단차	2.31		싱크대밑 무릎공간	1.16
		걸려 넘어질 위험 요소	1.93		충분한 수납공간	1.76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	2.38		효율적인 상하부 수납장	1.00
		내구성있는 바닥재	2.41		수납장 손잡이 형태	2.00
		보온성있는 바닥재	2.28		등근 모서리의 부엌용품	2.27
		충격이 적은 바닥재	2.07		충분한 온도	2.75
		휠체어 주행에 용이	2.27		창문설치 유무	1.88
	평균	2.24	식탁 유무		1.78	
	설비 및 조작 기기	개별 냉난방	0.52		식탁밑 무릎공간	2.57
		다루고 알기 쉬운 온도조절기	1.47		분리수거공간 확보	1.82
		온도조절기 위치	1.86		분리수거 쓰레기통으로의 접근성	1.71
		비상벨 설치 유무	1.14		평균	2.00
		비상전화, 인터폰의 위치	1.78		육실 문의 폭	1.21
		스위치 위치	2.34		개폐 방향	1.54
	평균	1.51	응급시 바깥에서 열릴수 있는 문		2.25	
	현관	현관문 손잡이 형태	1.29		레버식 손잡이	1.11
		도어 체크 설치	2.59		스위치 위치	3.00
		현관밖 조명	2.14		비상호출기 설치 유무	1.00
		프라이버시 유지	1.18		등근 모서리	2.42
		수납공간(신발장) 유무	2.07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	1.46
현관홀 조명		2.59	육실 조명(밝기)	2.15		
현관홀 자동점멸 조명		2.48	휠체어 여유 공간	1.43		
현관홀 벽의 지지대		1.62	안전 손잡이 유무	1.78		
평균	2.00	견고한 안전 손잡이	2.82			
거실	휠체어 활동 공간	2.30	안전 손잡이 지름	2.73		
	안전 손잡이 설치	1.22	안전 손잡이 높이	1.82		
	작동이 용이한 창문	2.36	벽면에서 떨어진 안전 손잡이 설치 유무	1.40		
	창 잠금장치 작동의 용이함	2.28	욕조의 깊이	1.86		
	침실로 사용시 사생활보호	1.73	욕조의 미끄럼방지 매트	1.35		
	평균	1.98	욕조앞 휠체어 회전공간	1.40		
침실	휠체어 사용가능 공간	2.45	높이 조절 샤워기	0.87		
	불박이 가구 유무	1.17	샤워 의자	1.32		
	가구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활동 가능 공간	2.00	레버식 수도꼭지	2.11		
	침대 사용 유무	2.40	온도 조절 샤워기	2.81		
	육실과의 인접성	2.84	견고하게 고정된 세면대	2.62		
	침실의 조명	2.42	세면대 주위의 여유공간	2.05		
	문턱	1.95	세면대 수도꼭지	2.20		
	온도 조절 세면대	2.72	수납이 가능한 세면대 형태	0.63		
	평균	2.18	세면대위 수납장	1.04		
베란다	휠체어사용이 가능한 폭	1.19	거울 위치	1.09		
	별도의 급배수 설비	2.19	경사 거울	1.31		
	수납장문 개폐 여유공간	2.13	수건걸이의 위치	2.41		
	수납장 설치	2.96	수건걸이의 높이	2.00		
	난간의 높이	2.30	견고한 수건걸이	1.92		
	평균	2.26	돌출되지 않은 비누곽	0.78		
부엌	부엌 크기의 적절함	1.44	수납장의 유무	2.50		
	높이 조절이 가능한 작업대	1.00	수납장의 위치	0.82		
	물흘러내림 방지턱 작업대	2.89	변기 위치	1.00		
	개수대와 조리대옆 여유작업공간	2.00	평균	1.75		
	전체 평균 : 2.03					

1) 총점은 3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사항에 대한 물리적 환경계획이 잘되어 있음을 의미함.

점수(평균값)를 산출하였다. 그리하여 점수가 낮을수록 조사대상 가정의 물리적인 주거환경은 열악한 것을 의미한다.

1) 일반적 사항 분석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평가에서는 설비 및 조작기기의 평가점수가 3점 만점 중 1.51점으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는 바닥(2.24점), 벽(2.32점)의 순이었다. 바닥에 대한 평가에서는 특히 걸려 넘어질 요소(1.9점)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콘센트 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전선을 연결하여 사용하게 됨으로 전선이 길게 늘어지는 현상이 야기되는 경우와 문턱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나 수납공간부족으로 바닥에 놓여 있는 물건으로 인해 걸려 넘어질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 및 조작기기 내용에서 개별 냉난방 조작기는 대부분 안되어 있어(평균 0.5점), 거의 하루종일 실내에서 생활하는 지체장애인들이 원하는 실내온도 설정을 하기가 어려웠다. 자신이 원하는 실내온도를 유지하고 싶은 것은 지체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어린이 등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이다. 한편 온도조절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조절기의 숫자를 읽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많아 오조작의 위험이 있었으며, 그 위치 또한 너무 높거나 접근하기 어렵게 되어 있었다. 비상벨이 설치된 가정 역시 전체 29가정중 장애인 전용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2가정 뿐이었다. 응급시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비상전화나 인터폰이 설치된 경우, 휠체어 사용자나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었다.

2) 현관공간의 물리적 주거환경 분석

현관공간은 8개 항목에 대해 정량적 평가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평균 2.00점으로 나타나 보통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8 항목중 프라이버시 유지에 대한 계획이 가장 미비(1.18점)하였는데, 현관문을 열었을 때 외부에서 내부의 사적인 영역이 쉽게 노출되지 않아야 하나, 현관문 개폐가 쉽지 않은 조사대상자들이 대부분 현관문을 열어 놓고 생활하고,

특히 협소한 주택 규모로 거실겸 침실에서 생활하는 여성지체장애인들이 많아 프라이버시유지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작은 평수의 공동주택에서도 현관에서 생활공간이 한눈에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한 다양한 평면형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현관문의 통과 유효폭은 평균 79.6cm로 휠체어 통과시 여유폭이 넓지 않았다. 문의 폭은 개조하기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여유있는 통과 유효폭을 가진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관에서 실내로 진입시 단차는 평균 5.55cm로, 이런 높은 단차는 휠체어 사용시 실내로 들어올 수 없는 장애가 되며 외출시에도 사고의 위험이 있다. 특히 휠체어나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가정에서는 현관에 보조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3) 거실공간의 물리적 주거환경 분석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소규모 평형으로 인하여 거실겸 침실, 거실겸 부엌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거실이 생략된 주거환경을 가진 가정들이 있었다. 거실공간에 대한 5개 항목의 평균 평가점수는 1.98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거실공간에서 평가된 항목들이 조작기기에 관한 것이 많아 평균 점수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적으로는 거실을 침실로 사용할 때 다른 공간으로부터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에서는 평균 1.73점으로 사생활보장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손잡이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평균 1.2점).

4) 침실공간의 물리적 주거환경 분석

침실에 대한 7개 항목의 평균 평가점수는 2.18점으로 보통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공간활용을 위한 불박이장의 설치는 평균 1.17점으로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보여 불박이장의 설치가 미비함을 알 수 있었다. 공간활용을 위해서는 소규모의 평형일수록 불박이장 등의 수납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휠체어 사용가능 공간에 대한 평가에서는 평균 2.5점으로 보통을 약간 상회하였다. 이는 침대를 사용하지 않는 사례 가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

기 때문에 공간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침실문의 통과 유효폭은 평균 93.9cm로 나타났다. 이는 개조를 통하여 문 폭을 넓힌 사례 등이 포함된 결과이며 또한 거실을 침실로 사용하는 경우 문 폭이 넓어 평균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욕실과의 인접성은 평균 2.8점으로 잘되어 있어 욕실로의 접근성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앞서 설문 면접조사결과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조사 대상 가정이 소규모 평형의 공동주택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여 욕실과의 인접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가구문을 열고 활동이 가능한 공간에 대한 환경에서는 휠체어를 사용하여 침실가구로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5) 베란다 공간의 물리적 주거환경 분석

베란다에 대한 5개 평가항목의 평균 점수는 2.26점으로 분석되었다. 주거공간의 협소로 베란다는 수납공간과 세탁, 건조 공간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샷시등을 설치하여 내부 공간화하였다. 그러나 베란다 폭의 협소로 사용하려는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이용하기가 어렵고 휠체어 사용시에는 회전 유효폭이 확보되지 못해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6) 부엌공간의 물리적 주거환경 분석

부엌에 대한 20개 평가항목 점수는 2.00점으로 분석되었고, 개별 항목별로는 높이 조절이 가능한 작업대(1.00점)와 효율적인 상하부 수납장(1.00점)에 대한 평가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부엌 작업대 사용자에게 맞게 높이 조절을 할 수 있는 작업대를 설치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또한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여성지체장애인들에게 싱크대 밑에 무릎공간을 확보하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여유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이러한 환경에 대해서 본 사례 조사의 경우 평균 1.16점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이는 작업대 접근성이 낮아 높이를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작업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옆으로 접근하여 작

업을 하게 됨으로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어 개조 후에도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꼭지 높이 또한 높아서 사용하기 불편한 사례 가정이 대부분이었으며(평균 1.76점), 하부 작업대의 높이를 신체에 맞게 개조하여 낮추었으나 수도를 낮추지 못하여 사용시 물이 튀는 불편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부엌공간이 협소하여(평균 1.44점) 충분한 작업공간을 갖지 못한 가정이 많았으며 수납공간 또한 매우 부족함을 나타내었다(평균 1.76점). 이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수납을 위한 상부 오르내림장의 설치나 하부 서랍식 수납장의 설치여부를 살펴 보았으나 이 또한 전무하였다. 이는 장애인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 부족하여, 개조시 이를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협소한 부엌공간으로 인해 분리수거를 위한 공간확보 역시 어려웠고 작업대 높이는 평균 72.5cm로 일반적인 작업대 높이보다는 낮게 개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7) 욕실공간의 물리적 주거환경 분석

욕실은 각 실별 평가 결과, 가장 낮은 평균 점수(1.75점)를 나타내어 실내 공간중 가장 문제점이 많은 공간으로 분석되었다. 평가 항목별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욕실 사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욕실 문의 통과 유효폭이 확보되어야 하나 조사대상 가정에서는 평균 1.21점으로 확보가 안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욕실문의 개폐방향 역시 응급시를 대비하고 좁은 욕실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깥으로 열리도록 되어 있어야 하나 대다수의 가정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평균 1.54점) 분석되었다. 하지만 바깥에서도 욕실문을 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서는 보통의 수준(평균 2.25점)을 나타내었다. 문손잡이는 조작이 용이하도록 레버식 손잡이가 편리하나 일반적으로 돌리는 형태인 실린더형(knob)으로 되어 있었으며, 이것이 불편하여 문손잡이를 떼어낸 가정도 있었다. 욕실바닥과 실내바닥 간의 단차는 평균 5.6cm로서 단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휠체어뿐만

아니라 클러치, 목발 등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에게도 위험과 불편을 주므로 욕실 바닥을 올려 단차를 없애주는 것이 모든 지체 장애 유형에 가장 바람직하다. 이때 욕실 바닥에 난방이 가능하도록 난방 파이프를 설치하는 개조공사를 해 주면 겨울에도 따뜻한 욕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경사로를 설치하려 한다면 물기가 있을 때에도 미끄럽지 않도록 미끄럼방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가 욕실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므로 비상호출기의 설치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비상호출기의 설치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안전손잡이 설치 역시 높이가 평균 1.82점으로 사용자에게 적합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샤워기 또한 높이 조절이 가능하지 않고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이 물리적 주거환경평가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2.03으로 보통 수준으로 분석되어 지체장애인들에게 안전, 자립, 편리를 제공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요약하면, 일반적인 사항들 중에서는 설비 및 조작기기에 대한 평균점수가 가장 낮아 지체장애인들이 실내의 조작기기를 작동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간별로는 욕실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는 거실, 부엌과 현관이었다. 거실은 조작기기에 대한 항목이 많아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욕실공간과 부엌, 현관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들 공간들은 지체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주거공간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안전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공간들로 이들 공간에 대한 주거환경 계획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결과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 여성지체장애인들은 대부분 중증인 1급 장애인이고 현주거에서 평균 7년의 거주기간을 갖고 평균 19.13평의 협소한 주거에서 거의 대부

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었다. 그러므로 주거 내에서 안전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의 가장 기초적 실천사항이 되어야 한다.

2. 개조 경험이 있거나 없는 것에 상관없이 개조 비용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 이로 인해 개조비용의 부담을 정부나 본인 이외의 단체에서 해주길 희망하였다. 따라서 주택개조 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해 주는 정책적인 배려가 요구되며, 개조비용을 최대한로 줄일 수 있는 개조 아이디어나 관련 용품의 개발 및 제공이 시급하다.
3. 대표적인 개조공간 및 개조 희망 공간으로는 욕실과 부엌이었다. 따라서 이들 두 공간에 대해서는 지체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특성에 맞추어 세심하게 개조가 가능하도록 실제로 개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세한 내용을 담은 개조매뉴얼¹⁾을 개발하여 장애인뿐만 아니라 시공업자 등에게도 공급해야 한다.
4. 조사대상 여성지체장애인들은 전세, 월세, 영구임대의 형식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현실은 주택개조를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게 하여 불편을 느끼면서 불만족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임대주택이라도 거주자가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거주하는 동안 개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용 영구임대 아파트와 같은, 궁극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다.
5. 주택내 개조경험이 있는 조사대상 여성지체장애인들의 개조 후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이는 개조를 하고자하는 장애인과 가족들의 개조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고, 개조를 수행하는 업체들의 기술부족과 많은 부품 설비들에 대한 정보 부족 및 고가의 수입품을 사용하지 못하여 제대로

1)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지체장애인 가정과 관련업체에 보급하기 위한 "지체장애인을 위한 주택개조매뉴얼" (2000년 12월)이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에서 행정자치부의 지원으로 개발되었다

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거주자의 개조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개조 매뉴얼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관련업체에도 보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지체장애인 가정의 물리적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평가도구는 연구자들이 문헌고찰과 현장답사등을 통해 개발한 것으로 그 타당성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 보완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여성지체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지체장애인 이외의 장애유형을 가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연구될 필요가 있으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오찬욱(2000). 지체장애인의 관점에서 본 소규모 아파트 공간에서의 유니버설디자인 특성. 한국주거학회지, 11권 3호, 99-107.
- 오찬욱(2001). 공동주택 거주 지체장애인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주거환경 특성 요인.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편, 17권 2호, 29-36.
- 인천광역시(2000).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천 여성 의식조사. 인천광역시.
- 장윤정(2000).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실증적 요구 조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기원의(1995).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성진(1998).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장애인 주택개조, 편의시설다시 보기. 파라다이스 복지재단 장애인편의시설축진시민모임.
- 최재순, 이의정(2000). 장애인을 위한 주택개조 사례 연구. 새천년건설환경디자인대회-유니버설 디자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7). 장애인, 노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방안.
- Hiroko Mizumura, Nobuko Ogawa (2001). The Analysis of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people with severe upper limb disabilities in Sweden through cooking-The study on housing environment for people with thalidomide-induced upper limb disabilities. *Journal of Architecture, Planning, and Environment Engineering*, AIJ, 541, 71-78.
- 물리적 주거환경 분석을 위한 조사 도구인 체크리스트는 크게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내용과 각 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로 나누어 항목들이 개발되었다. 각 항목들은 보건복지부, 서울시건축사회 및 관련 문헌을 통하여 조사대상 가정의 주거환경을 평가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추출하였으며, 2000년 7월 14일 예비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체크리스트를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 및 보완하였다.